

kiri Weekly

2014.7.21 제292호

포커스

최근 금융정책 변화와 시사점

글로벌 이슈

2013년 세계 보험산업 현황과 전망

보험산업이 주목해야 할 신종리스크(New Emerging Risk)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최근 금융정책 변화와 시사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이성은 연구원

요약

■ 최근 현정부 들어 두 번째 종합금융정책인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발표되었음. 첫 번째 정책인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2013. 11)과 비교할 때 두 정책은 각각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이라는 다른 화두에서 출발 하였지만 정책 목표에 있어서는 ‘실물경제 지원’과 ‘경쟁력 강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두 정책은 모두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보험산업 입장에서는 자본시장과 관련한 채널 활성화, 특히 채널 통합화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본고는 최근 발표된 『금융규제 개혁방안』과 2013년 발표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¹⁾ 비교를 통해 최근 금융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함.

- 정책당국은 2014년 7월 금융산업 전체에 대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공개하였으며, 보험부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정책당국은 이미 2013년 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 있어 금번 정책은 현정부의 두 번째 금융관련 종합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고는 2013년과 2014년의 정책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봄으로써 보험산업 입장에서 유의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²⁾

1) 2013년 11월 발표된 “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른바 10-10 value-up(향후 10년 내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10%)이라는 비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함.

2) 보험산업에 국한된 정책에 대해서는 CEO Report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2014. 7)에서 그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가급적 논의하지 않고자 함.

■ 두 정책은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이라는 서로 다른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실물경제 지원’과 ‘경쟁력 강화’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 2013년 정책은 창조경제와 고령화 등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발굴함으로써 실물경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도 제고하고자 하고 있음.
 - 특히 10-10 value-up이라는 비전 하에 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중점을 두었음.
- 2014년 정책은 강력하고 상시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의 편의성과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결국, 두 정책은 각각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이라는 사회적 화두의 차이 때문에 핵심적인 실행 방안에 있어서 ‘금융의 새로운 역할 발굴’과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궁극적인 정책의 목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 ‘실물경제 지원’과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종합대책은 모두 ‘자본시장 활성화’에 일관된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두 정책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모두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음.

〈표 1〉 자본시장의 신성장 동력과 관련한 대책 비교(2013, 2014)

구분	2013	2014
신서비스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 상장지수증권(ETN)도입 선물 거래 확대(변동성지수, 장기국채) 장수채권 발행 -	(기 실행) (기 실행) 선물거래 (섹터지수, 미국달러, 단기금리) 추가 대재해채권 추가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
연금 자산의 자본시장 유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퇴직연금 자산 비중 조정	운용 위탁형 상품 도입으로 구체화 위험자산 운용 규제 완화, 디폴트 옵션으로 구체화
신채널	펀드 슈퍼마켓 도입 펀드 전문 독립투자자문업 도입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	펀드 슈퍼마켓의 보험 판매 장기 추진 독립투자자문업 펀드 부문 우선 도입 추진 금융상품자문업, 금융상품판매업 도입 검토 복합점포 도입

자료: 1) 금융위원회(2013),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2) 금융위원회(2014), 『금융규제 개혁방안』,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은 첫째, 직접적인 보증 또는 기술 등 지식재산에 기반한 금융 공급의 확대, 둘째, 상장, 공모, 증권발행, M&A 등과 관련한 자본시장의 자금 조달 기능 활성화로 요약되며, 따라서 두 번째 방향은 사실상 자본시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금융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정책 모두 ‘규제 완화’와 ‘신성장 동력 확충’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자본시장의 신성장 동력 확충에 많은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본시장의 신성장 영역과 관련해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세제혜택펀드, 상장지수증권(ETN) 등 신상품 도입 뿐 아니라 퇴직연금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과 자본시장 관련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대책이 강구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 특히, 판매 채널과 관련해서 2014년 정책은 영역을 통합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보험 상품의 영업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관련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금융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보험 부문 정책의 경우 2013년 정책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신성장 영역 발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반면, 2014년 정책은 주로 규제 완화와 모집 질서 건전화 분야로 논의의 중심이 이동되었다고 평가됨.

<표 2> 보험산업의 신성장 동력과 관련한 대책 비교(2013, 2014)

구분	2013	2014
신서비스	위험률 할증 고령층 특화 상품 개발 종합 노후건강관리 특화 보험 도입 안전관리서비스 상품 도입 건강상태 등 고려 연금액 조정 상품 개발 연금저축에 의료비 인출 기능 추가 단기소액보험 도입 해외환자유치업 허용 단기수출보험시장 민간 개방	안전할증 확대로 추진 - - 비건강인 연금 상품으로 구체화 (기 실행) 상품·서비스 연계보험으로 구체화 - - 의무배상책임보험 확대 지수형 날씨보험 도입
신채널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온라인 전문 생보사 허용 단종 보험대리점 종합 상담사 제도 도입 검토	도입 검토 (기 실행) 지속 추진 금융상품자문업과 유사

자료: 1) 금융위원회(2013),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2) 금융위원회(2014), 『금융규제 개혁방안』,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정책은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신성장 동력 발굴에 많은 중점이 두어진 반면, 2014년 정책은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면이 있음.
 - 보험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과 관련한 이러한 현상은 의료(종합 노후건강관리 특화 보험, 안전관리서비스), 관광(해외환자유치업), 산업(단기수출보험)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존재로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반면, 2014년 정책은 가격 자유화와 관련해서 이율과 위험률 결정에 대한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모집질서와 관련해서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GA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구체화하는 등 보험산업의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됨.

■ 보험산업은 최근 금융정책의 흐름 속에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채널 통합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자본시장이 스스로 인·허가 등과 관련한 규제완화와 상장, 공모, 증권발행 등과 관련한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것은 금융산업 전체의 선진화 뿐 아니라 보험산업의 자산 운용 환경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판매 채널에서 보험 등 취급 상품을 추가하는 것이 근본적인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여지가 있음.
- ‘상담’, ‘독립’, ‘자문’ 등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 채널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받는 자문보수(fee)에 기반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충분한 여건 조성 없이 채널 활성화만 추진할 경우 변형된 형태의 판매수수료(commission)에 의존한 GA만 추가될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보험 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 행위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 채널 다변화가 영업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꾸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kiri